

## 신실함의 복리라는 장기 투자 전략 THE LONG GAME OF COMPOUNDED FAITHFULNESS

By C.C. Simpson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이 주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첫째는 지금 당장 백만 달러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 돈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1센트, 다시 말해 거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동전 하나를 받는 것이다. 당신은 이 두 개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이지 않고 백만 달러를 선택할 것이다. 백만 달러는 지금 당장 큰 돈을 내 손에 넣을 수 있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생을 바꿀 만큼 충분히 큰 돈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1센트는 그냥 길에 버려도 될 정도로 가치가 없고,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싶을 만큼의 가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 1센트가 매일 두 배로 가치가 오른다고 했으니, 단 한 달이면 530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1센트, 2센트, 4센트, 8센트, 16센트, 32센트, 64센트 이런 식으로 말이다.

What if I gave you two choices: one million dollars right now, or a single penny that doubles in value every day for 30 days? Which option would you take? Most of us would not even pause. A million feels immediate, secure, and transformative. A penny feels disposable, barely worth the space it takes up in your pocket. But here is the hidden math: That one cent, doubled every day, would grow into more than \$ 5.3 million in a month! In just the first week, it would increase, one penny, two pennies, four pennies, eight pennies, 16 pennies, 64 pennies.

그것을 통해 우리는 금융업계에서 "복리"라고 부르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10일째에는 겨우 약 5달러에 불과하다. 20일째에는 약 5,000달러를 조금 넘는다. 이 정도로는 아직 당신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성장 곡선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 압도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But then we would experience the quiet power of what the finance industry calls "compounding." By day 10, only \$5.12. But by day 20, just over \$5,000. Still not overly impressive. But in the remaining days, the growth curve explodes. What once seemed invisible suddenly becomes overwhelmingly apparent.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리의 원리가 우리의 현실에 직접 적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진정성을 보이고, 관대함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함을 삶에 실천한다고 해서 비즈니스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한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사소하게 취급받으며, 마치 처음 손에 들어온 1센트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하고 사소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며, 그 씨앗들은 결국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방식으로 복리처럼 자라난다.

In the Bible's New Testament, the apostle Paul points to a reality that relates directly to this principle of compounding: *"And let us not grow weary of doing good, for in due season we will reap, if we do not give up"* (Galatians 6:9). In the marketplace doing good, walking in integrity, practicing generosity, and staying faithful to Jesus Christ in ordinary ways rarely feels dramatic. It feels small. Hidden. Like that first single penny. Yet every act is a seed sown in God's field, and seeds compound in ways we cannot predict.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힘들다.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 낙심은 수확도 하기 전에,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살아도 당장 보상은 없는 것 같고, 종종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회의 자리에서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즉각적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책상 앞의 기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작성한 보고서와 같은 것들이 그냥 잊혀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모든 당신의 선택은 씨앗이며, 바울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수확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The challenge is enduring and persevering. Paul warns: *"Do not grow weary."* Why? Because weariness tempts us to quit before the harvest, the fruit of our labors. Being faithful in obscurity does not always feel rewarding. It often feels unnoticed: A kind word in a meeting no one remembers. A prayer whispered at your desk with no immediate answer. An honest report when no one is checking. Each seems forgettable. But they are not. Every choice is a seed, and Paul promises the harvest will come, in God's time.

그런데 사실 이 원리는 시장 문화와는 정반대에 있다. 비즈니스 시장의 시스템은 속도, 규모, 분기별 수익, 빠른 거래, 화려한 지름길을 이상화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움직인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시작, 꾸준한 순종, 조용히 축적되는 보이지 않는 신실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열매로 나타난다.

This runs against the culture of the marketplace. The system around us idolizes speed and scale. Quarterly profits. Fast deals. Shiny shortcuts. But the kingdom of God moves at a purposeful, deliberate pace. It treasures small beginnings, steady obedience, and the unseen faithfulness that builds quietly until, in God's timing, it explodes with fruit beyond imagining.

당신이 하는 일에서 이 원리는 아래와 같이 작동한다.

- 커피 한잔하면서 나눈 짧은 대화가 누군가의 마음 속에 복음의 첫 씨앗을 심는다.
- 한 젊은 전문가에게 쏟은 멘토의 꾸준한 헌신이 다가올 세대의 흐름을 바꾼다.
- 수십 년에 걸쳐 꾸준히 행한 기부가 전 세계의 복음 사역에 불을 붙인다.

Think about how this plays out in your work:

- A short conversation over coffee plants the first seed of the Gospel in someone's heart.
- A mentor's steady investment in one young professional can shape generations of people to come.
- A faithful pattern of generosity, compounded over decades, fuels Gospel work around the globe.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별로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 안에 떨어진 1페니(= 1센트) 동전들이다. 일단 하나님의 손에 넘어간 이상 그것은

우리로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증식한다. 그러니 바울이 권유했듯이 '낙심하지 말라'. 1센트짜리 씨앗을 계속 심고, 뿌리고, 선행을 하라.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서가 아니라 풍성한 수확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순종은 때가 되면 항상 열매를 맺는다.

None of this looks impressive at first. They are pennies dropped into God's economy. But left in His hands, they multiply in ways we could never manufacture. So, as Paul says, do not grow weary. Keep planting. Keep sowing. Keep doing good. Not because results come quickly, often they don't, but because the Lord of the harvest sees, and He is faithful. Obedience always produces fruit in due season.

비즈니스 시장은 백만 달러라는 지름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상 속의 성실함, 한 번에 하나씩 드리는 작은 순종과 같은 1페니(= 1센트)의 길로 당신을 부르신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당신은 예수님이 그것을 상상 이상으로 몇 곱절로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The marketplace will tempt you with shortcuts and instant millions. However, Jesus calls you to the penny: the daily choice of faithfulness, one small act of obedience at a time. And one day, you will see how He multiplied it into something you never could have imagined.

## 묵상과 토론

###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갈라디아서 6:9). 당신은 성과가 보이지 않거나 결과가 더디 나타나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어떤 곳에서 가장 크게 느끼나요?  
Paul warns us not to "grow weary" in doing good (Galatians 6:9). Where are you most tempted to give up because results feel slow or unseen?
2. 당신은 "신실함의 복리"라는 원리가 일터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작은 일상의 행동들이 결국 큰 영향력과 임팩트를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나요?  
How have you seen the principle of "compounding faithfulness" demonstrated in your workplace: small daily actions that eventually carry great influence and impact?
3. 비즈니스 시장은 종종 속도, 규모, 지름길에 지나치게 환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즈니스 세계의 문화적 압박에 어떻게 저항하면서 인내와 진정성을 실천할 수 있나요?  
The marketplace often celebrates speed, scale, and shortcuts. How can Christians resist those cultural pressures while practicing endurance and integrity?

4. 당신이 이번 주에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함의 1 센트”는 무엇인가요? 작지만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순종 가운데 어떤 것이 있나요?

What is one “penny of faithfulness” you can commit to this week: something small, but consistent that could reap long-term fruit in God’s economy?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잠언 14:23; 마태복음 13:31-32; 고린도전서 15:58; 갈라디아서 6:9-10; 히브리서 10:36**

Proverbs 14:23; Matthew 13:31-32; 1 Corinthians 15:58; Galatians 6:9-10; Hebrews 10:36

- **(잠언 14:23) 2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 **(마태복음 13:31-32) 31**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32**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 **(고린도전서 15:58)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 **(갈라디아서 6:9-10)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 **(히브리서 10:36)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 이번 주 도전

### Challenge for This Week

당신은 열심히 일을 하다 가도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며 선을 행하는 중에 낙심해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에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를 권면해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Do you ever find yourself becoming “weary in well-doing,” wondering what the point of the hard work you are doing without seeing any visible results is? At such times, we need to remind ourselves of God’s promises that “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It also helps to have someone to encourage us when our faith is wavering.

이번 주에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소그룹에서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일터에서나 개인적인 삶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되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Seek out someone this week, maybe a small group you meet with regularly, and explain about any situations at work or in your personal life that are tempting you to give up because you are growing weary in doing good. Pray for one another fervently, with earnest expectation.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저: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21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